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1차 정기
일시	17. 12. 04 18 : 30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12/13)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부총	총
0	0	0	0	0	0	0	0	X	0	0	0	0

□ 보고 안건

1. 회장단 소개 및 인사

2. 총학생회 국장 및 특기구 위원장 인준 (총학생회 회칙 제41조에 의거)

(1) 총학생회 집행부 국장 인준 진행, 12단위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

집행위원장(홍준호 도시계획부동산15), 연대사업국장(김혁진 사회복지15),
정책국장(성도광 심리16), 일상사업국장(신희웅 사회복지14), 기획국장(표다빈 경영15)

* 홍보국장, 사무국장은 다음 회의에서 인준 진행

(2) 총학생회 특기구위원장 인준 진행, 12단위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

인권복지위원장(이지섭 예시공13), 문화위원장(송용현 전전13),
졸업준비위원장(김영훈 공공13), 성평등위원장(박지수 사복15)

□ 논의 안건

1.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날짜 및 시간, 규칙 논의

- 종강 전까지의 회의: 매 주 월요일 18:30 총학생회실
- 방학 중 격주로 월요일 회의 진행, 카카오톡 투표로 방학 중 회의 시간 결정
- 중운위, 단운위, 과운위 등등 진행
- 중운위 전날 회의록 업로드 예정
- 각 단위별 "○○대 확인했습니다." 확인 카톡 부탁드립니다.

2. 정원이동 현황

1. 요약: 2012년 서울·안성 본분교 통폐합 승인 요건을 맞추는데 있어서 위조/조작이 발각. 이에 대해 법원이 행정처분을 내렸고, 2019년까지 안성캠퍼스로 정원이동을 시행해야 함. 현재 2019년 공과대학 정원 108명 이동을 전제로 한 세 가지 안이 도출, 2020년에 타 단과대학 정원을 공대로 이동하여 인원 손실을 보충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언론에 공개된 상태.

2. 59대 중앙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전 단위 공통 부담을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 부담 원칙을 함께 적용(이때 수혜자라 함은 본분교 통폐합으로 인해 정원 상의 증가가 이루어진 학과/부를 일컫는다.)

3. 경과

- 2012년 단일교지 승인 당시 교육부의 승인 조건: '교사확보율'(학생 1인당 시설 면적이 기준치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2016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중앙대의 본·분교 통합 승인조건 이행 여부와 단일교지 인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 진행 / 2014년 서울캠 교사확보율 100% 미충족.
- 실측 결과 103관(파이퍼홀)과 107관(교양학관)의 실제면적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면적상이. 오기면적 제외 지난 2014년의 서울캠 교사확보율은 약 97%.
- 2016년 10월 13일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소집: 2016년 11월 서울캠 학부 입학정원 일부 안성캠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확정. (중앙대학, 단일교지 승인 조건에 미달한 교사면적 8582㎡에 해당하는 서울캠 입학정원을 안성캠으로 이전 처분 확정)
-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어떤 계열에 적용하는지에 따라 이전 정원 상이. : 인문·사회계열 / 학생 1인당 교사면적 기준 12㎡, 공학 및 의학계열 /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20㎡.(인문·사회계열에서만 정원 이동: 179명, 공학 및 의학계열에서만 정원 이동: 108명을 이전.)
- 현재 공학계열 108명의 정원 이동을 전제로 한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논의 진행 중. 2019년 공학계열 정원이동으로 행정처분 이행 이후 서울캠퍼스 내부 정원이동으로 공학계열 정원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 자문, 가능 답변 회신.

4. 단과대학별 입장

- 공과대학: 각 교수별 지도교수와 배정과 관련한 문제, 커리큘럼 수정의 문제 등 일시 감축에 따른 고통을 공대 단독으로 안게 됨. 전 단위 고통분담이라는 59대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내용의 적용에 있어서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 있음. 또한 1+3전형, 2+2전형 등 커리큘럼 상 안성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확정적인 입학 전형에 대해 '수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 중앙대학교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위해 공과대학이 19년 단독으로 일방적인 정원 감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경영경제대학: 경영경제대학의 경우 국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 등 특수 학과와 지식경영학부를 제외, 네 개의 단위에서 인원 감축을 진행하게 되는 것. 수정 3안의 경우 공대를 제외하고 다른 단위에서 모두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게 되는 것인데, 소수 학과를 비롯하여 경영경제대학 내 네 개 단위에서 경영경제대학 정원 감축을 전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음.
- 인문대학: 수혜자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나 현재 오랜 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문대학에서는 안성에서 서울로 어느 과에서 몇 명 이전되었는가를 기반으로 수혜를 판단하기 모호한 상태.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에서 정원의 증감이 이루어진 수위를 기준으로 수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

5. 정원이동 관련 중앙운영위원회 대응

- 총장단 또는 기획처와의 면담 요청
- '수혜'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재논의
- 11월 선거기간 내 논의된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
- 20년 공대 인원 보상을 위해 인원 감축을 대폭 진행하는 학과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 필요, 각 단과대학별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필요(단위요구안 참조)

3. 새내기 새로배움터 단과대별 날짜 가안 취합

- 평창 올림픽으로 인해 새내기배움터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 됨
최대한 빠르게 각 단위별 날짜 확정 및 업체 미팅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동아리 연합회: 매 년 중앙동아리가 새내기 배움터에 공연/홍보를 위해 참석.
일정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빠르게 공유되어 동아리 간 날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요청.

4. 리더스 포럼 날짜 가안

- 1월 29일~31일 가안 / 확정 이후 재논의

5. 중운위 워크숍

- 종강 이후 재논의

□ 기타 안건

1. 겨울농활 진행

- 총학생회 차원의 겨울 농활은 진행하지 않음